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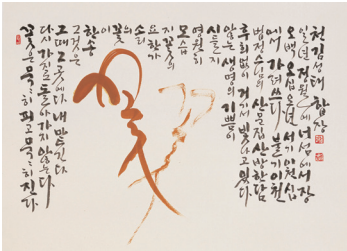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법정스님 5주기 추모판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꽃(64x46) · 장천 김성태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5 / 3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는 친절
법정 스님 어록	08	무심히 귀를 기울이라
처음 마음으로	14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공부를 성취한다
	19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는다
스님 평안하소서!!	24	스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30	법정 스님의 가르침
법정 스님 책 속의 책	32	쇠고기를 넘어서
따뜻한 이야기	34	뒤늦은 후회
향기나는 우체통	36	교도소에서 온 편지 / 장학생에게서 온 편지
길은 사람 따라 흐른다	38	바람 불어 좋은 날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1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지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5년 3월 1일 발행 / 통권 241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염현경, 정은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는 친절

글·법 정(法頂)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무엇인가? 불교도 기독교도, 혹은 유대교도 회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은 자비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다'는 매우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랑하다'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사는, 이웃과 남을 돕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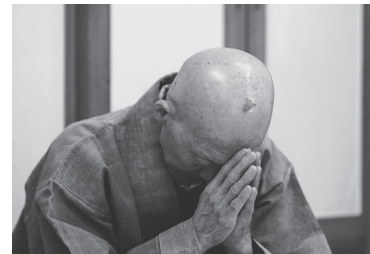
자신에 대한 염려에 앞서 남을 염려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릴 때, 인간은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다면 아직 진정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은 거의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에서 끼어들어 오겠

다고 신호를 주면 양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별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같이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인데도 마음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양보할 수 있음에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분명 서로에게 좋을 리 없고, 마음이 개운치 않을 텐데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어느 책에선가 읽은 구절입니다. '친절은 두 존재의 연결이며, 가까워지려는 소망이고, 자신의 가장 깊은 자아를 타인과 나누려는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친절은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모든 것

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해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과거의 어떤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해치려는 사람의 마음 역시 과거의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원인과 조건을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불교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친절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지구를 행복하게 합니다. 지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감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번 여름 안겨 기간 동안 '친절'을 화두 삼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스님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가풍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노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와 허물없는 사이여서 노스님 방에 자주 가고 했는데, 어떤 여성 신도가 와서 늘 노스님에게 안마를 해 주었습니다. 발도 주무르고 팔도 주무르고, 허리 어깨 할 것 없이 밤이 늦어 삼경(밤11시-새벽시)이 가까워지도록 안마를 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스님의 상좌도 자기 은사스님처럼 젊은 여성 신도에게 똑같이 안마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 절이 발각 뒤집혀서 그 스님을 배척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행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습관이 됩니다. 업이란 하나의 습관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몸뚱이는 길들이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나쁜 길이 안 들

도록 미리 단호히 끊어 버려야 합니다. 인정사정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풍이라 할 것은 없지만, 두세 해 전의 일입니다. 이 절에 빛이 많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 어떤 업자들이 절에 납골당을 지으면 어려움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며 주지스님과 저를 유혹했습니다.

설계도까지 가지고 와서 몇 차례나 즐랐습니다. 이 절을 만들 때 맑고 향기로운 도량, 또 가난한 절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이념에 맞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을 만들면 돈이 쏟아져 들어와서 신도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덜어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도량이 아닙니다.

이 절의 신도들은 깊이 명심하십시오. 스님들은 절에서 한때 머물다 가지만, 신도들은 대를 이어 도량을 지키고 보살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릅니다. 신도들이 맑고 향기롭게 지키고 가꾸려는 의지를 잃지 않으면, 그 도량은

누가 와서 살든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됩니다. 물질이 많아서 흥청거리는 절을 더러 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은 청정한 부처님 도량이 아닙니다. 돈 많은 절에 가 보면, 스님들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그곳은 절이 아니라 장사꾼들 장터입니다. 그런 도량이 적지 않습니다.

불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올 때 돈과 절을 가지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부처님의 마음과 자비심을 가지고 교화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 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절들이 생기고 도량이 생겨난 것입니다.

저의 또 하나의 가풍으로, 주지스님과 대중스님한테 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 일꾼이든 스님이든, 대중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간섭하지 않을 테니 여기 사는 스님들이 알아서 하되, 누구든 자의에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내보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와 의논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도량에 들어왔으면 같은 식구입니다. 같은 법의 형제

입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내보내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 절에는 우리가 이 도량에 오기 전부터 살았던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오염된 대기 중에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도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허락 없이 나뭇가지 하나라도 자르지 말라고 늘 당부합니다. 나뭇가지가 건물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두고두고 지켜본 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나무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그늘지고 습하다고 해서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됩니다. 늘 당부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들어와서 산 생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스님과 불자들이 도량을 가꿀 때, 그곳은 진리의 빛



을 발합니다. 이곳에 오면 모두들 좋아합니다. 여기 머물고 정진하는 스님과 불자들이 그만큼 안으로 청정하게 정진하고 있어서, 그 빛이 저절로 이 도량에 비쳐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라는 것을 마음에 거듭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이 지구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 역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04년 6월 2일 여름안거 해제 법문

(© 일여/길상사 사진공양집 '날마다 새롭게' 중에서)



무심히 귀를 기울이라

돼요. 수행자의 방은 단순하면서도
충만된 정신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 불 여름 가을 겨울

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
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
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는 관계 속에
서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 홀로 사는 즐거움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

그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라.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환하게 꽃
피우라.

- 오두막 편지

“화두로 삼겠으니 좋은 말씀 한 마디 적어주세요”하며 슬쩍 내민 책 속지에 ‘좋은 말씀이라 쓰시며 책 속에 다 있다고 하십니다. 스님의 책에서 좋은 말씀 몇 가지 가려내어 귀 기울여봅니다. - 편집자 주

수행자는 그날그날 하루살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
게 시작해야 합니다. 수행자의 방은
작을수록 아름답고 충만해요. 너무
넓고 크면 방을 채우느라고 이것저것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늘어놓게

나는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그 두
메산골의 오두막에서, 이다음 생에
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앞뒤
가 환칠하게 트인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자 원을 세웠다. 그 원이 이루어
지도록 오늘을 알차게 살아야겠다.

- 버리고 떠나기

좋은 시를 읽고 있으면 피가 맑아
지고 삶에 울동이 생기는 것 같다.
시는 일용할 양식 중에서도 가장 조
출하고 향기로운 양식일 것이다.

- 버리고 떠나기

좋은 친구란 서로가 빈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이일 것이다.

서로의 빈 마음에 현재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사이여야 할 것
이다. 그 어떤 선입관념을 가지고는
친구가 될 수 없다.

- 물소리 바람소리

흙에서 멀수록 병원과 가까워진다
는 말은 어김없는 진리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돌아가 살아질 곳 또한

이 흙이다. 이런 흙을 더럽히면 자신
의 뿌리가 그만큼 허약해진다는 사
실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한다.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한 목숨
이라는 우주 생명의 원리를 믿고 의
지하라. 남을 해치는 일이 곧 자신
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고, 어
떤 유혹에서도 넘어짐이 없이 사람
의 자리를 지키라.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데, 이 몸으
로 사람 구실 못 한다면 이다음 생
에는 또 어디서 무엇이 되어 견디기
어려운 윤회의 고통을 받게 될지 누
가 알겠는가.

- 버리고 떠나기

사람을 본질적으로 감화시키는 것
은 그럴듯한 말에 있지 않고 몸소 움
직여 보이는 행동에 있다. 좋은 말을
한다는 것과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긴
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지식보다 뛰어날
때 그 지식은 유익하다. 그러나 그 지

식이 그 사람의 행위보다 크게 드러날 때 그 지식은 무익한 것이다. 진짜 수행자는 그 어떤 종파를 막론하고 앞뒤가 특 트인 단순성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 산방한담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사람은 그리운 사람이다. 한 시인의 표현처럼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는 그런 사람이다. 곁에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그리움의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런 사람과는 때때로 만나야 한다.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 없으면 삶에 그늘이 진다. 그리움이 따르지 않는 만남은 지극히 사무적인 마주침이거나 일상적인 스치고 지나감이다. 마주침과 스치고 지나감에는 영혼에 메아리가 없다. 영혼에 메아리가 없으면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 버리고 떠나기

행복의 조건은 결코 크거나 많거나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다. 조그

마한 일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조촐한 삶과 드높은 영혼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살 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

- 물소리 바람소리

사람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 사람이 같은 사람을 못 미더워하고 두려워하고 꺼리는 풍토에서는 아무리 약속을 다짐하고 두껍고 질긴 종이에 서명 날인한다 할지라도 저 말 없는 언약에 미칠 수 없다.

- 서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소유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훌훌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

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 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 무소유

우리는 흔히 살아 있는 생수를 멀리한 채 끓여서 죽은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커피를 비롯해서 각종 음료들은 살아 있는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면 즐겨 마실 것이 못된다.

- 홀로 사는 즐거움

살아 있는 물은 멈추지 않고 늘 흐른다. 강물은 항상 그곳에서 그렇게 흐른다. 같은 물이면서도 늘 새롭다. 강물은 이렇듯 늘 새롭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거죽은 비슷하지만 실재는 아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다. 살아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늘 새롭다.

- 홀로 사는 즐거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늘 새롭다.

새로워지려면 묵은 생각이나 낡은 틀에 갇혀 있지 말아야 한다. 어디에건 편하게 안주하면 곰팡이가 슬고 녹이 쓴다.

- 오두막 편지

우리가 보다 간소하고 단순한 본질적인 삶을 이루려면 안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살피고 들여다보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서 야기되고 있는 과소비 현상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높아진 이 시점에서, 단순하고 간소한 삶의 의미를 한번쯤 생각해 봄직도 하다. 우리는 언젠가 낙엽처럼 나뒹굴 그런 존재 아닌가.

- 버리고 떠나기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아득한 옛적부터 많은 것을 아낌없이 무상으로 베풀어 오고 있다.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밝고 따뜻한 햇살과 천연의 생수와 강물, 침묵에 잠긴 고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논밭의 기쁨진흙,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 사랑스럽

게 지지귀는 새들의 노래, 그리고 생
기에 넘치는 숲…….

온종일 주위섬긴다 할지라도 자연
의 혜택을 말로는 다할 수 없을 것이
다. 이와 같은 자연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 인간의 대부분은 감사할 줄
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다. 우리 곁에 이런 자연의 은혜가 없
다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처지인
데도, 현대인들은 고마운 자연 앞에
너무도 무감각하다.

- 텅 빈 총만

한 생각을 일으켜 맑고 향기롭게 살
아가기 운동에 나서게 되었지만 별다
른 뜻은 없다. 우리 시대가 하도 혼탁
하고 살벌하고 메말라 가는 세태이기
때문에, 본래 맑고 향기로운 인간의 심
성을 드러내어 꽃피워 보자는 단순하
고 소박한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
을 맑고 향기롭게 지닐 때 우리 둘레
와 자연도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질
것이고,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세
상도 또한 맑고 향기로운 기운으로

채워질 것이다.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진공묘유라는 말은 텅 빈 데에 오묘
한 것이 있다는 뜻이다. 텅비우지 않고
는 새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 생
명의 우물을 고이게 할 수도 없다. 그
래서 선가에서는 “입차문내(入此門內)
막존지해(莫存知解)”라고 타이른다.
이 문 안에 들어오려면, 다시 말해 진
리의 세계에 들어오려면 시시콜콜하
게 따지지 말라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새 눈
이 열릴 수 있다는 간절한 당부이다.

- 서 있는 사람들

먼저 살다간 사람들의 말에 의하
면 하나같이 인생은 짧다고 한다. 어
물어물하고 있을 때 인생은 곧 끝나
버린다는 것. 후파 지나 가버리는 것
이 아니라 곧 끝나 버린다는 말이다.

- 산방한담

- 종교는 한 마디로 사랑의 실천
이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보살행, 자비행은 깨달은 후에 오는
것이 아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익
혀가는 정진이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쌓은 행의 축적이 마침내는 깨달
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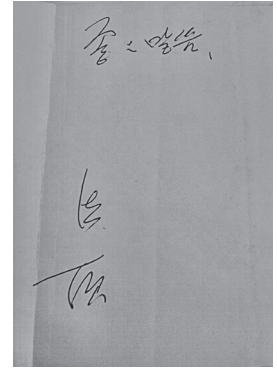
- 산에는 꽃이 피네

거듭 말하지만,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 하지 말라. 둘을 갖게 되
면 그 하나마저 잃게 된다. 모자랄까
봐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
자람이다. 그것이 가난이고 결핍이다.

- 산에는 꽃이 피네

지혜와 자비의 길을 통해서 우리
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녀온
그 씨앗이, 불성과 영성의 씨앗이 맑
고 향기롭게 꽃피어난다. 본래 청정
한 우리 마음을 명상과 나눔으로 맑
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아 사
는 세상을, 그리고 마음을, 그 속에
서 의지해 살다가 언젠가는 그 품으
로 돌아가 영원히 안길 자연을 향기
롭게 가꿔야 한다.

- 산에는 꽃이 피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
게 살고 싶다.

- 오두막 편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따뜻
한 말을 나누는든가, 아니면 시간을
함께 나누는든가, 함께 살고 있는 공
동체와의 유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사는 기
쁨도 없다.

- 산에는 꽃이 피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공부를 성취한다

글 • 덕 운(德耘)

옛 조사스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사의 큰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祖師)의 공안을 잘 참구하라.”
 생사를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염불(念佛), 참선(參禪), 관법(觀法), 주력(呪力), 경전공부(經典工夫)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참선법을 권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참선법 중에서도 화두선(話頭禪)을 권하고 있습니다. 공안(公案)이 곧 화두입니다. 화두라는 말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용어입니다.
 역대 조사스님들께서 알려주신 화두, 이 화두에 의지하여 선을 닦아가는 것을 화두선(話頭禪)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두의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두의 화는 ‘말씀 화(話)자로서 말이라는 뜻이고, 두는 ‘머리 두(頭)자로 앞서간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두는 ‘말보다 앞서 있는 것’ 혹은 ‘언어 이전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화두를 공안(公案)이라고 하는데 공은 공중(公衆) 즉 ‘누구든지’ 라는 뜻이고 안은 ‘방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안은 ‘누구든지 이대로만 하면 성불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교를 믿던 믿지 않던, 복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방법대로 공부를 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두는 고려 때 혜심국사가 지은 ‘선문염송’에 보면 대략 1,700여 가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문에서 널리 쓰고 있는 한 가지 화두를 예를 들어 화두를 지어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로 들 화두는 스님들이 가장 많이 드는 화두 중 하나인, 조주 ‘무자(無字) 화두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의 조주선사(趙州禪師)가 동관원(東觀院)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젊은 수행승이 개를 안고 와서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무(無)”
 이것이 화두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사람들에게 “일체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개에게도 틀림없이 불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주선사는 단 한마디 ‘무(無)’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조

주선사께서 영똥한 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조주선사께서 깨달은 경지에서 곧바로 말씀하신 것이요, 언어 이전의 참된 답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라도 조주선사께서 ‘무(無)라고 하신 까닭을 분명히 알면, 그는 조주선사와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곧 조주선사와 하나가 되어 대오(大悟)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주선사께서 ‘무(無)라고 하신 까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화두법에 의지하여 가장 명확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머리를 굴려서 얻는 해답으로는 안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의심하고, 의심의 삼매 속에 들어가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조주선사는 어째서 ‘무라 하였는가?”
 “틀림없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데, 조주선사는 어째서 ‘무라 하였는가?”
 “어째서 ‘무라 하였는가?”
 “어째서 ‘무인가?”
 “무?”

이와 같이 끊임없는 물음이 계속 된다면 마침내 삼매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삼매가 지속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통 밑이 쏙 빠지는 듯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주 스님께서 '무(無)라고 하시니까 '무' 자란 글자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글자 자구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글자 자구에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무(無)라고 한 조주 스님의 의지(意志處)를 읽어야 합니다. 자구(字句)자체에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개가 흙덩이를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자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흙덩이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던진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이것을 사자반척(獅子搬躑)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조주 스님의 의지처'를 읽어내고자 노력해야지 글자 자구에 매달리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공부 방법을 확실히 인지하고 그리고 그 공부에 철저히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당히 해서 될 일도 아니요, 재미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생사를 해결하려는 공부인 만큼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하고 힘들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옛 조사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길 "크게 깨치는 것으로 근본을 삼고, 부디 스스로를 가벼이 여겨 물러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곧 투철히 공부하여 대오(大悟)하라는 말인데, 대오(大悟)는 완전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무상대오를 이룰 때까지는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생인데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용맹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옛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길, "하지 않을 뿐이지, 해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념으로 화두를 참구하는 것!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공부에는 요령이 통할 수도 없고, 왕도도 없습니다.

간절한 일념으로 크게 의심을 일으켜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화두를 지어 가는데 가장 요긴한 점이고, 크게 의심해야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흙이 많으면 불상이 크고, 물이 높으면 배가 높이 뜬다."는 속담이 있듯이 의심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큰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의 법칙은 오직 대오밖에 없습니다. 공부하다가 작은 깨달음의 경계가 찾아오면 거기에 만족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평생 큰 깨달음을 얻을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큰 깨달음을 얻겠다는 굳은 의지로 철두철미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간절 절(切)', 이 한 글자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바깥세상에는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의 마음

이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한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에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에 탐닉하면 공부는 고사하고 패가망신하고 맙니다.

보고 듣는 것을 줄이고 한적하고 고요한 곳을 찾아서 공부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박산 무이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공부를 짓되 가장 요긴한 것은, 이 간절 절(切)자이니 절자(切字)가 가장 힘이 있느니라. 간절치 않으면 해태심이 생기고, 해태심이 생기면 방종함에 이르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만약 마음씀이 참으로 간절하면 방일해태가 무엇을 말미암아 나리요? 마땅히 알라. 절(切)자 한자는 고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이 없으며, 생사를 깨트리지 못할까 근심할 것이 없느니라. 간절 절(切)자 한자는 당장에 선과 악과 무기(無記) 세 가지 성품을 뛰어넘나니, 마음씀이 매우 간절한즉 선을 생

각지 않을 것이요, 마음씀이 매우 간절한즉 악을 생각지 않을 것이며, 마음씀이 매우 간절한즉 무기(無記)에도 떨어지지 않나니, 화두가 간절하면 산란심도 없고, 화두가 간절하면 혼침도 없느니라. 간절 절(切)자 한자는 가장 친절한 말이니, 마음씀이 간절한즉 틈이 없으므로 마(魔)가 침노하지 못하고 마음씀이 간절해야 「있다, 없다」하는 등 계교하고, 헤아림이 나지 아니하면 외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공부를 성취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황벽 선사가 말씀하시길

“진로를 벗어나는 것이 예삿일이 아니니 승두를 꼭 잡고 한바탕 지을 지어다. 한차례 추위가 뼈골에 사무치지 않으면 어찌 매화가 코를 찌르는 향기를 얻으리오.” 하셨습니다.

세상의 사소한 어떤 일일지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데, 하물며 생사를 해결하려 하는데 어찌 조그마한 노력과 신심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계송 한 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盡日尋春 不見春 (진일심춘 불견춘)

芒鞋踏破 嶺頭雲 (망혜답파 령두운)

歸來偶把 梅花臭 (귀래우파 매화취)

春在枝頭 已十分 (춘재지두 이십분)

진종일 봄을 찾아 헤매었지만 찾지 못하고
 짚신 짝 끌며 잣나무 구름을 두루 밟았네.
 집에 돌아와 우연찮게 매화까지 향 맡아보니
 봄은 매화까지 끝에 이미 내려 앉아 있었네.

- 불기2258년 동안겨 결제 법문

법정스님 5주기 추모법회

- * 3월 16일(음. 1월 26일)
- * 오전 11시/길상사 설법전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는다

글 • 최인호

2010년 3월 중순, 나는 함 군을 부추겨 한낮에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를 찾았다. 나에게서는 무리한 외출이었다. 2009년 10월부터 시작된 항암 치료가 이미 5차에 걸쳐 시행되었고, 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총 6차에 걸쳐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는 치료는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러 한 차례만 남기고 있었지만 나는 이 끝 간 데를 모르는 투병생활에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다는 절박한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다.

내가 길상사를 찾으려 했던 것은 법정 스님 때문이었다. 성모병원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나는 스님의 열반 소식을 들었다. 뉴스를 전해들은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을 뿐 마음은 담담했다.

(생략) 그러나 허무하게도 입적하셨다는 뉴스를 입원실 텔레비전을 통해 본 순간 언젠가 보았던 사진작가 주명덕 씨가 찍었던 법정 스님의 뒷 모습이 떠올랐다. 온다 간다는 문안 인사나 작별인사도 없이 훌쩍 소매를 떨치고 빈자리만 남기고 사라지던 밀짚모자를 쓴 법정 스님의 뒷모습. 그는 지금 그 뒷모습으로 긴 그림자를 떨치며 이승의 생애에서 피안(彼岸)의 바라밀다로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

나는 법정 스님의 유골이 안치된 건물 앞으로 다가가 줄지어선 문상객 뒤에 따라섰다. 다행히 나를 알아보거나 주시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차레가 되어 신발을 벗고 건물 안

으로 들어서자 널찍한 법당 구석구석에 방석을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한쪽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생전에 대중을 향해 설법을 하던 스님의 모습이 방영되고 있었다. 빠르고 카랑 카랑하던 스님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문상객들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부분 여신도들이었는데 개중에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씻어 내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차례를 기다리며 중앙에 안치된 법정 스님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약간 미소를 띤 것 같기도 하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무엇인가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한 법정 스님 특유의 표정을 본 순간 나는 문득 낮이 설었다.

차라리 영정 사진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스님에게 영정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깨끗하게 무(無)자체로 돌아가고 싶다는 법정의 유언 앞에서 저 꼴불견의 사진은 무엇인가.

일찍이 만공(滿空)스님은 입적을



앞두고 시자들에게 물을 떠오라 이른다. 시자들이 목욕물을 떠오자 스스로 평생토록 입던 육신의 옷을 벗어 내린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안좌한 후 거울을 가져오라고 이른다. 시자가 거울을 가져오자 만공은 물끄러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껄껄 웃으면 말하였다.

“자네와 내가 이별할 인연이 되었구나 보구려. 그럼 잘 있게. 그동안 고마웠네.”

그렇다.

죽은 영정의 사진은 법정 스님이 평생 동안 빌려 쓴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 가면의 얼굴이 스님의 진면목은 아닌 것이다. 아니다. 법정이란 이름도 진아(眞我)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 또한 허명에 불

과한 것이다.

불교 최고의 고불(古佛)이자 법정 스님이 존경하던 조주 스님은 일찍이 죽은 사람을 쫓아가는 장례행렬을 보면 한탄하지 않았던가.

“한 사람의 산 사람을 수많은 죽은 사람이 쫓아가고 있구나.”

조주 스님의 말대로 법정 스님은 과연 죽었는가. 아니다. 조주의 말이 옳다면 법정은 죽어서 산 사람이 되었다. 무한극수(無限極數)의 수명을 가져서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금강불괴신(金剛不壞身)의 법정이 어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죽어 있는 사람은 배를 올리기 위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아닐 것인가.

마침내 차례가 되어서는 나는 배를 올리며 마음속으로 기원하였다.

“어쨌든 안녕히 가십시오. 스님과 나의 인연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짧은 문상을 끝내고 나는 방석을 깔고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물끄러미 스크린에 비친 스님의 모습과 영

정사진을 번갈아보면서 깊은 상념에 잠겼다.

*

언제였던가. 7년 전이었던가. 2003년 봄. 바로 이곳 요사채에서 법정 스님과 나는 3시간 정도 자리를 함께 했었다. 그때는 지금보다 한 달 정도 지난 완전한 봄날이어서 뜨락에 있던 매화나무가 활짝 피어 있었다. 바로 그 매화 꽃잎을 따서 꽃잎차를 만들어 법정 스님과 나는 함께 나누어 마셨었다. 그때 스님은 천식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간간히 기침을 하셨지. 그때의 잠재의식이 향기로운 매화향기가 되어 내 뇌를 스친 것일까.

잡지<샘터>가 지령 400호를 맞이하여 법정 스님과 나는 산다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니다. 법정 스님과 감히 대화라니. 주로 내가 질문하고 스님이 대답을 하는 일방적 형태의 정답이었다. 훗날 채록된 원고를 보고 내 몫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는데 어쨌든 그날의 대답은 법정

스님과의 만남에서 잇을 수 없는 깊은 인연이었다.

세 시간 이상 걸린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날 무렵 내가 “스님, 어느 책에 선가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하셨는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법정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기억난다.

“실제로 죽음이 닥치면 어떤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확고해지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의 삶의 폭이 훨씬 커집니다. 사물을 보는 눈도 훨씬 깊어집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면 지금까지의 삶이 소홀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저것 보세요.”

함께 언덕길을 내려오던 함 군이

손가락으로 담장 너머로 우거진 덩굴을 가리키며 말했다.

“꽃이 피었네요.”

예민한 함 군은 내가 그토록 어서 봄이 와 꽃피는 것을 기다렸던 속마음을 짐작하고 있었음일까.

“어디, 어디?”

나는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넉쿨 쪽으로 서둘러 다가갔다.

“여기요, 노란 꽃이요.”

과연 함 군의 손끝에는 작고 노란 꽃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술만 방긋거리듯 수줍게 피어 있었다.

“이 꽃 이름이 뭐지 아세요?”

꽃에 조예가 깊은 함 군이 말했다. “노란 꽃 빛깔 때문에 금으로 만든 허리띠, 즉 금요대(金腰帶)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영춘화(迎春花)라고 불러요.”

“영춘화라면…….”



“이름 그대로 ‘봄을 맞이하는 꽃’이지요. 꽃 중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예요. 설중사우(雪中四友)라고 하여서 눈을 맞으며 피는 이름 봄, 조춘(肇春)의 대표적인 꽃이예요.”

나는 그 모진 한파와 눈보라 삭풍을 이기고 그토록 목 놓아 기다리던 꽃으로 살아 돌아와준 누이와 같은 노란 색깔의 영춘화를 어루만졌다.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아가야, 나는 노란 꽃잎을 보면서 소리 내어 중얼거렸다.

너도 그토록 봄을 기다렸느냐. 그리하여 영춘화가 되었느냐. 나 또한 봄을 기다렸다. 그래서 나 또한 영춘화가 되었다. 네 피어난 대견한 모습에 아가야, 색동옷을 입혀주랴, 연지

곤지 짙어주랴, 돌상을 차려주랴, 꽃반지를 끼워주랴.

순간 내 머릿속으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금언이 떠올랐다. “꽃잎은 떨어지지만 꽃은 지지 않는다.”

아가야, 그렇다. 꽃잎은 해마다 피고 떨어지지만 꽃은 영원히 지지 않는다. 법정이란 이름의 그대는 꽃잎처럼 떨어졌지만 하늘과 땅이 갈라질 때부터 있었던 본지풍광(本地風光)과 부모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대의 진면목(眞面目)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잘 가십쇼, 큰형님. 법정이란 허수아비의 허물은 벗어버리고 지지 않는 꽃으로 성불하십시오.

* **최인호** : 1945~2013. 서울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절인 1962년 단편 '벽구멍으로'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가장 입선하여 문단에 데뷔하였고, 시류의 정곡을 찌르는 예리함으로 시대와 대중의 요구에 모두 부합하는 작품을 써내며 천재적 작가로서의 역량을 과시했다.

-故최인호 작가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기존의 책 <대화>(샘터 간)속에 수록된 법정 스님과의 인터뷰 내용과 생전에 남기신 '인생'이란 책에서 법정 스님과의 추억과 정신을 기린 원고를 모아 <꽃잎은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여백 미디어)라는 책으로 3월초 재출간될 예정이다.

스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맑고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길상사 나무 그늘 아래 앉으면 법정 스님의 미소와 가르침이 바쁜 마음을 쉬어가게 해줍니다.

법정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지 어언 5년이 되었지만,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는 바쁘고 지친 마음을 쉬어가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님의 유품이 간소하게 모셔져 있는 진영각.

진영각 뒷마루에 앉아 저마다의 소소한 이야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소원이나 다짐도 있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5주기 추모법회를 맞이하여 스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착하게 살겠다는 말씀을 1년 전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마음 그대로 앞으로도 살겠습니다.

*

3월의 마지막 휴일.

근심거리가 있고 삶에 있어 지칠 때 오곤 했습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이 더 행복하고 즐겁기보다는 지금이 더 행복했으면 합니다.

무소유처럼 저도 제 자신에게 용서와 배려가

넉넉했으면 합니다.

*

그 동안 살아온 세월 동안 감사함을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함과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씩 하나씩 원하는 일들을 해내며 지금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제가, 이제야 고마움과 감사함을 깨닫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욕심

을 버리고 사람과의 소통과 관계 속에서 상 처받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제 마음 속에 평온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딱 하나 욕심을 낸다면 포근히 기댈 수 있고 살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따사로운 햇살 아래 앉아 있게 해주셔서…….

*

법정 스님!

벌써 3년이 흘렀네요. 스님 빈 지도…….

스님께서 봄이 되면 매화꽃을 참으로 좋아 하셨죠?

매화꽃이 흠뿌리듯 바람에 다 떨어지고 지금은 연초록 잎이 돋은 5월을 내다보는 완전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영각 뒷마루에 앉아 화단에 심어진 작약의 꽃망울이 너무도 예뻐서 찬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금낭화에 주렁주렁 매달린 꽃들도 반가워 맞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이 계절에 법정 스님을 떠올려봅니다.

*

법정 스님께

뵙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 늘 등불이 되어 제 가슴을 지키고 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처럼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향기가 저의 남편과 딸에게 소중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님!

부디 꽃 같은 학생들, 어디서든 지켜주세요.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득 담아 빌어봅니다.

*

스님, 누군가는 이렇게 햇살 좋은 봄날 나를 이를 오고 또 누군가는 암 병동에서 고통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차가운 비닷물에 가라앉아 있을 자신의 시신만이라도 찾고 싶은 간절한 맘으로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죄스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이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스님의 말씀처럼 초록빛 물감을 풀어둔 듯 주위는 온통 푸름을 자랑합니다.

사람은 어느 한 사람의 만남으로도 커다란 변화가 있어 새로 태어난다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스님으로 인해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살아생전 스님을 만나 뵙지 못함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고,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이 스님의 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읽은 때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으로 옮기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스님! 스님께 여쭙 보고 싶은 말은 많으나 어리석은 이 중생은 스님께 여쭙 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요즘 따라 삶과 죽음의 차이도 모르겠고 제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최소한 신념을 지키다 보면 답을 만나겠지요?

스님, 부탁이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명을 달리한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음엔 더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법정 스님께,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 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구절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하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디 스님께서 제게 그런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미워하고 원망하고 구분 지으며 잊고 있었던 사람의 본성이 본래부터 맑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스님, 한번 불러 보고 싶었습니다. 무소유, 쉬울 것 같은 이 단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스

님을 만나 뵙게 되어 제 인생이 행복합니다.

*
진흙 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어지러운 세상 속에 피어나는 꽃이 되렵니다. 온 몸 흙투성이가 되었어도 그 향기만은 잃지 않으렵니다.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진흙탕일지라도…….

*
법정 스님
스님 가르침대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게 보고 적게 먹고 많이 나누어 맑은 가난을 추구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도와주십시오.

*
스님, 생전에 스님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스님께서 저의 영원한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청빈과 무소유, 그리고 사색하는 삶.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님이 남기신 정신적인 유산은 길이길이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
경애하는 법정 스님께,
평생 겪어보지 못한 고난의 비를 지난 5개월간 겪으며 깊은 참회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고도 없이 닥쳤던 폭우와 회오리 속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업을 닦으며 참회하고 또 참회합니다.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 대한 좌표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히 이 시간들을 잘 견디어 내겠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은혜 갠 것입니다.

*
언젠가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스님의 글을 만났고, 그 글을 따라 오늘 이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좇을 때 문득 당신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생 함께 할 반려자를 데리고 여기를 찾았습니다. 함께 하는 길에 비록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오래도록 사랑하고 함께이길 보살펴주십시오.

*
스님,
너무 일찍 가셨습니다. 사바세계에서 길을

읽고 헤매고 있는 중생들을 두고 너무 일찍 가셨습니다. 저승에서도 늘 저희 불쌍한 중생들을 굽어 살피 주시고 극락왕생 하시옵소서. 지금도 스님의 굳건한 걸음걸이, 장엄하신 목소리를 잇을 수가 없습니다.

*

법정 스님, 계신 곳에서도 평온하신지요? 우연히 스님의 흔적이 있던 곳으로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쓰신 글을 읽고 한동안 욕심내지 않고 살려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스님처럼 살기가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좀 더 마음을 비우고, 청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 떠나는 날,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빈손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했고, 따뜻했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

마음속에 불을 안고 살고 있어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늘 평안하게 지내도록 해주세요. 따뜻하고 지혜로운 아내, 엄마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스님을 기억하고, 스님의 삶을 기억하고, 이곳 진영각을 기억하며 갓 태어난 아이처럼 저의 마음 깨끗이 처음으로 되돌리고 갑니다. 다음에 올 때까지 이 마음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

스님, 나약하고 간사한 저의 마음을 꾸짖어 주십시오. 외롭고 괴로울 때만 찾는 저의 마음을 꾸짖어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한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이해하지 못한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

캐나다에 20여 년간 살면서도 늘 마음 한 구석에는 한국에 대한, 모국에 대한 관심을 끊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낯아준 나라와 키워준 나라 캐나다가 동계 올림픽 등에서 결승전에 오르면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응원해야 할지? 그러던 중 아는 분으로부터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싶어 무소유가 소유

의 반대 개념일까 여러 번 새김질을 했습니다. 아직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법정 스님 책에서 보자면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국이 이기든, 캐나다가 이기든 그 기쁨의 바탕에도 역시 집착이 있음이 보입니다. 이제 두 나라를 부담 없이 바라보고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지요. 생각하도록, 자신을 살펴보도록 해주신 스님께 감사드리며.....

*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요즘 하루하루 힘들고 지친다는 생각들만 가득 차 기분이 자주 울적해지곤 합니다. 20대의 일상을 직장과 집에서만 보내는 게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제 자신을 보고 슬프기도 하고 안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 조금 이나마 충전을 하기 위해 이곳 길상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길상사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를 힘차게 보낼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

법정 스님!
무소유의 가르침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맑고 향기롭게!
무소유!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 2014년 3월에서 12월까지 진영각 방명록에 남긴 글 중에서 가려 뽑았습니다.

**법정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 3월 22일(일) 오후 2시
- 길상사 설법전
- 출연 : 김현성 - 무소유의 노래
유승엽 - 오카리나 연주
Season Of Soul - 퓨전국악
박창근 밴드



법정 스님의 가르침

글 • 한수광

제가 알고 있는 법정 스님은 종교인이시면서도 전혀 종교인의 티를 안 내시는 소박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제 어머니와 법정 스님은 오래전부터 두터운 친분이 있으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잘 안 나타나는 분이셨지만 어머니가 전담회를 하시게 되면 꼭 찾아와 주시곤 하셨지요. 어머니에게 인생의 스승님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좋은 곳에서 저희 모두를 지켜봐 주시고 있으시겠지요. 제 이름 수광(壽光)은 법정 스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 이름을 불러줄 때 스님 생각이 문득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와 함께 법정 스님이 계셨던 송광사의 불일암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참 어린 저였지만 스님의 간접적인 행동과 말씀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때의 몇 가지 생각나는 일화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녁밥을 먹을 때가 되었죠. 저는 그 당시 절에서 먹는 음식(채식 위주)이 제 입맛에 안 맞을 것을 미리 알고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전 컵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스님께서 제가 먹던 컵라면을 한 젓가락 맛보시더니 “와~ 수광아~ 네가 먹는 컵라면 정말 맛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스님도 수광이가 좋아하는 컵라면

먹어봤으니 수광이도 스님이 좋아하는 절밥 좀 먹어보자.”

저는 먹던 컵라면을 옆으로 밀어두고 스님의 말씀대로 절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정성들여 직접 차려주신 밥과 반찬들을 아주 맛있게 먹게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쌀 한 톨도 안남기고 전부 다 먹었습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스님께서 기거하시는 방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티타임(tea time)을 가졌습니다. 스님과 어머니께서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셨지요.

전 어릴 때라 콜라, 사이다같이 달달한 탄산음료를 좋아했던 때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갔던 콜라를 옆에 두고 안 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정 스님의 차 드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스님께서 아주 맛있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약간은 익살스러우셨습니다. 스님께서 드시는 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스님께서 드시는 차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쓰다

고 느꼈던 차를 달콤한 느낌으로 기분 좋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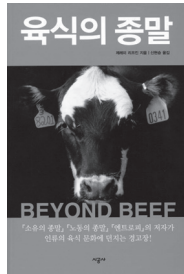
차를 마시며 스님께 전할 어머니가 사주신 전자시계를 보여드리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스님 손목을 쳐다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스님께서서는 시계를 차고 계시지 않아 “스님께서 왜 시계가 없으세요?”하고 물으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광아, 나는 시계가 필요 없어. 해가 뜨면 일어날 시간인 것이고, 수행하다 배가 출출해지면 점심밥을 먹을 시간이 된 것이고, 해가 지면 잘 시간이 된 것이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저였지만 스님의 행동과 말씀들은 제 마음속에 큰 가르침으로 새겨졌습니다. 이렇듯 법정 스님은 사소한 행동과 말씀만으로도 어린 저에게 가르침을 쉽게 전해주셨던 것이지요.

스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시기 전에 찾아뵙지 못했던 것이 정말 죄송하고 후회가 됩니다. 오래전에 스님께서 제게 주셨던 가르침을 마음에 고이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쇠고기를 넘어서 (한국어 출판명 : 육식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 신현승 옮김



미국의 환경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제레미 리프킨은 <쇠고기를 넘어서> 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든, 지구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든,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든, 또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서든 산업사회에서 고기 중심의 식사 습관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소와 돼지, 닭 등 가축들은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분의 1을 먹어 치우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70퍼센트 이상이 가축의 먹이로 사용된다. 초식동물인 소가 풀이 아닌 곡식을 먹게 된 것은 20세기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사실은 농업의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1파운드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데에 16파운드의 곡식이 들어간다. 곡식을 먹여서 키운 고기 중심의 식사법을 만들어낸 이런 생산 체계가 한정된 지구 자원을 낭비하고 파괴하고 있다.

가난한 제3세계에서는 어린이를 비롯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곡물이 모자라 굶주리며 병들어 죽어가는 동안,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물성 지방의 지나치게 섭취로 인해 심장병과 뇌졸중과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미국 공중 위생국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1987년에 사망한 210만 명의 미국인 중에서 150만 명의 경우는 먹는 음식과 관련되는데, 여기에는 포화지방의 과잉 섭취가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미국에서 두 번째로 흔한 질병인 대장암은 연구 결과 육식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한다. 한 연구 보고서는, 고기 소비와 심장 질환 및 암 발생과의 높은 관련성을 보여 주고 있는데, 쇠고기 문화권에서 심장병 발생률은 채식 문화권보다 무려 50배나 더 높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은 말 그대로 '먹어서 죽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사례를 읽으면서 내가 두려움을 느낀 것은,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리의 전통적인 식사습관을 버리고 서양식 식사습관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마다 초만원을 이루고 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되돌아보아야 한다. 먹어서 죽는 것은 미국인과 유럽인들만이 아니다. 우리도 먹어서, 너무 기름지게 먹어서 죽을 수도 있다.

동물들의 사육장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

하고 무자비한 존재인가를 같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수송아지들은 태어나자마자 좀 더 순종적으로 되고 그 고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거세시킨다. 또 짐승들끼리 비좁은 우리 안에서 서로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쇠뿔의 뿌리를 태워 버리는 화학약품이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사용된다. (중략)

이와 같은 리프킨의 글을 읽으면서, 육식 위주의 요즘 우리 식생활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태로운 먹거리를 되돌아본다. 일찍이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익혀 온 식생활이 더없이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 우리는 그릇되게 먹어서 죽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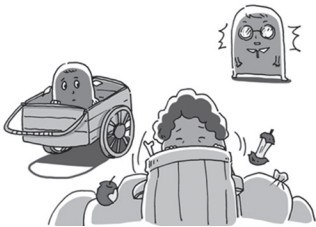
- 먹어서 죽는다 중에서

뒤 늦은 후회

해외 출장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후, 숙소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구경 삼아 걷다 보니 어느새 식사를 한 식당 앞에 다시 와 있었습니다.
그 때, 눈에 들어온 그림자 하나.
손수레와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폐지 수거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손수레에는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타고 있었고, 식당 앞에 손
수레를 세워둔 채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한 여자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 제가 먹었을지도 모르는 음식에
서 먹을거리를 찾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주춤하는 순간 손수레에 타고 있는 아
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의 부끄러움인지, 배고픔인지 모르는 눈빛을 보는 순간,
당황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구경하듯 쳐다보고 있던 제 존재가
아이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들어갔지만,
꼬마의 얼굴이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안 되겠다!’

제발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식당 앞을 찾아갔지만,
주변을 모두 살펴봐도 두 사람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정말 후회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동정일지라도
배고픈 두 사람에게 따뜻한 식사라도 대접할 것을…….

선원에서 시작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어쩌면 그들은 며칠 내내 그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달의 명언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위안 받을 길이 없다.

- 시드니 J. 해리스 -

* 출처 : 따뜻한 편지를 전하는 비영리 단체 ‘따뜻한 하루’

* 맑고 향기롭게 노인 자살 및 빈곤 예방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 맑고 향기롭게

교도소에서 온 편지

설마하면서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는데 실습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책상에 놓여진 여러 권의 책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며 기쁜 마음에 크게 놀랐습니다.

여기는 직업 훈련 교도소라서 일요일에는 영상실에서 자율적으로 DVD 시청을 합니다. 2주 전에 '법정 스님 의자'라는 영상을 보면서 몇 번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도착한 책 제목을 확인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폭행 치사로 구속 수감 중인데 재판부에서 많은 참작을 해주셔서 큰 형량을 받지 않았지만, 제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평생 동안 고통을 주었다는 생각에 늘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누님들께서 정목 스님, 혜민 스님, 월호 스님, 혜국 스님 등 여러 스님들의 책과 염불 책을 넣어주셔서 아침, 저녁으로 독송을 하지만 마음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내주신 법정 스님의 책을 읽고 스님의 말씀대로 '맑고 향기롭게'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사회에 출소해서 저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 형편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선하게 저의 죄를 씻는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학력이 부족하여 말 주변도 없고 문장이 형편없지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올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출소를 하면 지나는 길에 절에 들러서 멀리서나마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학생에게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맑고 향기롭게 장학생 00 고등학교 졸업반 김00입니다.

고등학교 3년간 맑고 향기롭게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3년동안 마음껏 학교 학생회 활동과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여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대학교에 합격한 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투기 식품회사에서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어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계시는지, 맑고 향기롭게 회원님들의 후원이 얼마나 큰 결심과 값진 일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맑고 향기롭게와 인연을 맺고, 도움을 받은 만큼 저 또한 이 인연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맑고 향기롭게 장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덕운 스님과 맑고 향기롭게의 회원님들의 건강과 원하시는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5년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추천받습니다.

- 장학 대상 : 전국 고등학생 (40명 내외)
- 장학 기간 : 1년 (분기마다 각 학교 장학금 통장으로 입금됨)
- 장학 내용 : 학비 전액
- 추천자 : 회원, 지부 사무국, 현직 교사, 사회복지사에 한함
- 접수 마감 : 2015년 3월 20일(금) 우표 소인까지
-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참조
- 장학금 동침 후원계좌 : 외환은행 141-22-01683-9 / 맑고 향기롭게

바람 불어 좋은 날

글 • 강인철

한강을 벗어나며 월드컵공원에서 행주산성까지 자전거를 탔다. 날씨는 쾌청했으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봄을 시샘하는 바람 끝이 제법 차다. 그래도 마음만은 이미 봄을 노래하고 있어서일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나없이 싱그럽다.

젊은이들의 자전거 행렬에 끼어 귀 밑머리 하얀 아저씨도 지나가고 글라이더를 띄우려는 동호인들은 잔디광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야단들이다. 바람을 잘 아는 새들은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도 공중을 장시간 비행한다는데, 아마도 그렇게 닮아보려고 기를 써보는 게 글라이더의 꿈이 아닌가 싶다. 그런 모습들을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낯선 구경꾼들과 어울려 물 한 모금씩도 나눠 마신다.

서울시에서 고양시로 경계가 바뀌고 훨씬 넓어진 둔치에 이르면 왜 바람 불어 좋은 날인지를 증명이라도 하듯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떼로 나와 시합도 한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연들이 하늘로 치솟을 때면 실감이 난다. 내 어렸을 적 시골에서 경험했던 '가오리연 날리기' 정도는 감히 한 축 끼지도 못할 만큼 모양새도 가지각색이다. 방패연, 통연, 흥어연, 용연, 신호연, 매화연, 긴 꼬리연 등 처음 보는 진풍경들이 하늘을 가득 수놓고 있는 모습이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전문성을 지닌 클럽 동호인들답게 심지어 연을 사랑하는 '연사모'도 운영하며 한, 중, 일 국제대회까지 치른다니 새삼 놀라울 일이다.

오랜만에 보는 청명하늘 그 너머로

상상의 나라를 떠다가 생똥 맞게도 저 연처럼 이 몸도 훨훨 날아 태평양을 건너갈 수는 없을까 망상에 젖어 본다. 셋째 녀석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겸 태평양을 건너 간지도 어느덧 십 년, 그래도 보스톤에서 애써 땀 흘린 보람으로 결실을 맺어 올 봄엔 귀국하겠거니 내심 기다렸는데 애틀랜타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동지를 틀었다고 한다. 그 녀석들이 새로 마련한 보금자리가 어디쯤인지 저 '연'이라도 타고 날아갈 수 있다면 후딱 한번 다녀와 보고 싶다.

간절한 그리움일까 가슴이 싸~하다. 잔디밭에 큰 대(大)자로 누웠다. 구만리 하늘은 참으로 맑고 높고 푸르다. 저 창공을 날아 얼마를 달려가면 아이들이 사는 곳에 닿을 수 있을까. 천리일까 만리일까. 녀석들이 말했었다. 저희들 집에 오면 아빠가 좋아할 만한 곳 많이 보여 드리겠다고... 그렇게 한번 다녀가기를 간청하건만 알랑하계도 아직 태평양을 건너지 못하고 궁금한 채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마가렛

미첼이 1936년에 쓴 단 한 편의 대작이다. 그녀의 집이 바로 애틀랜타에 있고 소설의 배경 또한 남북전쟁과 전후 혼란기의 조지아 주를 무대로 한 작품이었다. 아이들이 지금 그곳으로 옮겼단다.

영화의 줄거리는 급변하는 사회상을 묘사하면서 아름답고 생활력 강한 여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를 둘러싼 세 남자와 다양한 인물들의 애증 문제를 다루고 있다. 크게 호평을 얻었던 작품으로 후에 풀리처상까지 받은 명작이었다.

부농의 딸 오하라는 전쟁통에 하루밤 사이 빈민으로 전락하지만 그녀는 어떤 역경에도 결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온갖 노력을 다해 현실을 개척해 나간다. 그러한 삶의 의욕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숭고한 정열이 화면에 가득했었다.

책에서도 감미롭고 애절한 사랑의 표현이 놀라울 만큼 섬세하게 묘사되어 독자들을 매료시켰었다. 이야기의 압권은 역시 주인공 스칼렛의 좌절하지 않고 운명을 개척했던 삶의 긍정



적 열정이었다.

애들랜타가 낳은 자랑스러운 여인 스칼렛 오히라처럼 녀석들 또한 삶에 있어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모조록 즐겁고 보람 있게 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 몇 년 동안 운명을 개척하겠다는니 노벨상을 꿈꿔 보겠다고 기염을 토했을 때, 기쁨 대신 애간장이 타 들어갔던 기억들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바람 불어 좋은 날, 글라이더와 연들이 하늘 높이 나는 걸 보고 있으려니 마구 들뜨는 마음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 태평양을 건너 가고 있다. 얼른 집에 가 셋째네 보아라! 하고 편지 한 통 띄워 보내야겠다.

서울은 아직 찬바람인데 너희가 사는 그곳은 어떠하나? 인터넷이 있어 크게 궁금한 거야 뭐가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무얼 먹고 사는지, 작은 늪 공원에서 뛰어 놀다가 넘어졌다면서 무르팍에 딱지는 곱게 앉았는지,

다시 시작했다는 어미의 학위는 언제 마치는지?

캠퍼스라이프와 사회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적응은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슬한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한다마는 그에 앞서 모든 것은 너희 네 식구가 무탈해야만 꽃을 피울 수 있는 법!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길 바란다. 혹시 살림에 부족한 것 있으면 빨리 기별하고…….

저기 가는 저 푸른 하늘의 흰 구름 한 점 똑 떼어 이 편지에 함께 넣어 보내고 싶다.

월간 '매키투기'와 뜻을 함께할 작가를 기다립니다.

시민모임 '매키투기'의 취지에 공감하는 뜻있는 작가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에세이&칼럼(건강, 여행소개, 예술문학, 1컷 카툰, 환경칼럼)
- 회원 투고, 작가의 문학작품은 수시 접수 및 문의 받습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이름, 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세요.

* 접수 : 전자우편 clean94@daum.net.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2015년 숲기행 안내

1. 주제 : 자연생태와 문화 그리고 역사의 어울림을 찾아서
2. 일정 : 4월 ~ 11월 첫째 토요일
3. 예정지 : (장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4월 4일 전북 익산의 자연환경과 역사유적
 - * 5월 2일 경기 여주 양평 일대의 자연환경 및 불교와 천주교의 만남 그리고 실학(천진암 천주교 성지, 주어사지)
 - * 6월 6일 남한강 일대의 자연환경과 폐사지 탐사
 - * 7월 4일 부여 부소산의 자연생태와 역사 문화 탐방
 - * 8월 1일 충북 하늘재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탐방
 - * 9월 5일 영주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역사의 흔적들
 - * 10월 3일 가야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대장경 세계문화축전
 - * 11월 7일 봉사지와 함께하는 강원 영동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적
4. 참가방법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65세 이하
 - 접수 : 3월 9일부터 전화 접수 받습니다.
 - 준비물 : 개인 점심,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기구 등 (날씨를 꼭 확인하여 비 올 가능성이 있는 날

에는 우비 준비)
 - 4월 참가비: 회원 30,000원/비회원 35,000원
 * 5월부터 참가비는 한국환경재단단체친선회에 공모한 지원 결과에 따라 변동되며, 장소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입금처 : 외환은행 301-22-00270-1 /
 예금주 : 매키투기

5. 참가비 환불 원칙

참가비 입금은 신청 후 5일 이내로 하셔야 하며, 참가비 환불과 이월은 출발 5일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취소 시 결식 후원금 처리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반반한 취소, 변동으로 참가하실 분의 참여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신청 접수하실 때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여행자보험용, 등록된 회원이 아닌 경우)를 꼭 알려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전화 문의하세요.

• 문의, 접수처 : 중앙모임 02-741-4696

'2030 문화와 함께하는 푸른 모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민모임 매키투기 중앙모임에서는 40대 이상의 회원들을 주축으로 많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독거어르신을 위한 매키투기 향기로운 말벗찬 나눔과 전화 말벗, 헌옷을 새 옷으로 만들어 청소년을 지원하는 의류리폼 및 녹색나눔장터,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봉사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진인노인요양원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젊은 층들의 참여와 활동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맑고 향기롭게 회원이나 가족중 20대에서 30대까지의 청년회원들을 중심으로 공연관람을 통해 장애인 및 소규모 공연단체를 후원하고, 서로간의 활발한 만남을 기반으로 친목을 다지며 향후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2030 푸른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푸른모임은 법정 스님께서 제안하신 청년모임의 이름으로 모임 초기 한동안 교류를 이어오다 긴 휴식기간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의 활동은 다음과 같으며 많은 청년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1) 대상 : 맑고 향기롭게 회원 또는 자녀가 20~30대 선착순 20명
- 2) 모임 :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첫 번째 금요일 오후 7시(예정)
- 3) 장소 : 대학로 및 성북구 일대 공연장과 영화관
- 4) 내용 : 매달 연극과 영화, 음악회(연회) 등을 번갈아 관람하고 11월에 창작공연 워크숍, 12월 공연
 - 연극(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작품)
 - * 연극의 경우에만 관람료의 1/3 본인부담, 최대 만원 이하
 - 영화(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족구왕 처럼 소규모 예산으로 제작된 수작들 위주)

- 음악회(장애인으로 구성된 합주 팀 및 합창단 초청)
- 공연 워크숍(11월에는 공연관람 대신 배우를 초청해서 공연워크숍을 가진, 특별로 5분정도의 콩트를 연습하고 우승팀 선별)
- 공연(공연워크숍의 우승팀은 맑고 향기롭게 회원 송년회 무대에서 공연)

- 5) 일정(매월 첫 주 금요일)
 - 7시 ~ 7시 30분 : 공연장소 집결
 - 7시 30분 ~ 9시 : 공연관람
 - 9시 ~ 11시 : 저녁식사(회원들끼리의 친목도모 및 연극의 경우 배우와의 만남)
- 6) 신청기간 : 4월 17일까지
- 7) 선정발표 : 4월 20일
- 8) 문의 : 사무국 02) 741-4696, 담당자 안근호 간사 010-8910-2536
-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사무국에서 알람 참조(www.clean94.or.kr)

2015년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 추천받습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맑고 향기롭게 길상화 장학생'을 추천 받습니다. 창립 이후 22년째(2014년까지 총 514명/총지급액 : 약 7억 3,000여만 원) 매년 선발하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 장학생'은 뛰어난 성적이 아니라도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학생이면 추천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40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비록 성적은 다소 뒤처지더라도

도 낙하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힘겹게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이 주변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추천해주세요.

- 장학 대상 : 전국 고등학생 (40명 내외)
- 장학 기간 : 1년 (분기마다 각 학교 장학금 통장으로 입금됨)
- 장학 내용 : 학비 전액
- 추천자 : 회원, 지부 사무국, 현직 교사, 사회 복지사에 한함
- 구비서류
 - ①추천서
 - 추천서는 2월 10일부터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천자 성명, 학생 정보 외 추천 사유
 - 학교 장학 담당자의 확인 기재
 - ②학생 서류
 - 가족관계부,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
 -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 학교 장학금 통장 사본 1부
 - 기타 인원 초과시 추가 검토 서류 (소득관련 증명서류)
-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 : 2015년 3월 20일(금) 우표 소인까지
- 선정 발표 : 2015년 4월 3일(금)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장학증서 수여식 : 2015년 4월 17일(금)
- 문의처 : 02)741- 4696, 총무팀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lean94.or.kr) 참조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외환은행 141-22-01683-9/맑고 향기롭게

2014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및 배분 결과

외로움에 지쳐있고 질병으로 인해 온전히 마음편할 날이 없는데다가 월세 걱정, 병원비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독거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이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려야할지,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궁리하였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2013년에 시작하여 2014년에 2년차를 맞은 사업으로 양적으로 확대된 성과를 올렸습니다.

2014년에는 신한은행 후원계좌 9,664,710원(27.1%), 자동이체(CMS)5,394,000원(15.2%) 캠페인 현장 모금함2,459,460원(6.8%), 인터넷 모금(네이버 해피빈, 다음 희망해) 12,409,822원(37%) 현금(방문후원)1,850,000원(5.3%), 동전저금통3,071,320원(8.6%) 합계금액 35,653,802원(100%)으로 전년도 대비 총 금액으로는 2천7백여만, 규모면에서는 4.5배나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3년의 경우 아름다운 마무리 사업의 첫 번째 해였습니다. 모금활동에 대해 사전에 홍보가 없었던 지하철역사나 대학로 등에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에 비해 2014년에는 모금활동 장소를 길



상사 경내로 옮겨 4월에서 11월까지 8개월 동안 한 달에 두 번, 공휴일과 일요일에 참여객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펼쳤고, 특히 주목할 점은 인터넷에서의 모금활동이었습니다. 다음 '희망해'를 통해 13,214,312원이 모금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9배, 금액으로는 1천 여 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총 35,653,802원 중 모금액의 66%인 23,637,420원은 월간 소식지에 소개되었던 8명의 결연대상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12,016,382원(34%)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2015년도 긴급의료비와 결식아웃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모금액 100% 전부를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회원들의 모금, 인터넷에서의 네티즌들의 참여유도, 길상사에서의 현장모금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홀로 된 상실감에 빠져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삶의 작은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 면을 빌어 법정 스님의 청빈의 가르침을 실천한 많은 기부자들과 사부대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 맑고 향기롭게
- 4월부터 진행될 거리모금 캠페인에 함께할 대학생, 청년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청소년봉사자와 독거노인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진행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이란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승가원장애아동시설에서 봉사를 하오던 청소년들이 사례관리 대상 어르신들을 방문하

여 다양한 정서적·지리 활동을 하는 청소년 자원활동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사례관리 대상자의 집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청소도 해드리고, 인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감과 발랄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독거노인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돋우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2학년생 10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로 참여 할 청소년 봉사자는 대기자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함께 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요즘은 단순히 옷을 입는다는 개념을 벗어나 개성, 창의, 디자인, 패션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새롭게 구매해 입는 것보다 예전에 입던 옷을 수선하여 개성에 맞춰 입는 풍토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또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청바지, 한복 천,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장터를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들은 의류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하는 분들로서, 하나 하나 청정하게 생활하면 두루 온 세상이 청정해 질것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함께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이나 디자

인에 소질이 있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를 비롯한 친환경용품을 만들어 기증해주시실 분의 도움도 기다립니다.

천연 화장품 만들기 강좌 3월부터 변동사항 안내

한방비누 만들기 변경 안내 - 3월부터 조리장에서 해오던 MP비누 만들기를 실내에서 가능한 CP비누로 변경합니다. CP비누는 재료 모두 실내에서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고 만든 후 숙성 시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시간이 짧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하여 비누와 녹차 스킨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만들 비누는 박하비누이고 가격은 1kg당 회원은 8,000원, 비회원은 10,000원입니다. 최대 2kg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박하비누의 효능 - 박하 속 멘톨 성분이 가려움증과 염증에 효과적이고, 시원한 향이 활력을 주어 기분을 좋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피부 톤을 밝게 해줍니다. 그 외에 한방, 송진, 녹차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티 스킨은 100ML 당 회원은 4,000원, 비회원은 5,000원입니다. 최대 4병까지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녹색나눔장터 3월부터 진행되며, 참여하실 분도 기다립니다.

생활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웃과 나누고, 버려진 옷을 이용한 재활용 리폼,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베품시장

이 함께하는 녹색나눔장터가 3월부터 진행됩니다.(3월 22일)

베품시장에 참여하시는 분은 수익금의 최소 20%는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후원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장터를 함께 진행하고 도움주실분을 찾습니다. 장터에 나온 물건들을 판매하고,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함께해 줄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전화발벗 봉사에 참여하실 분은 기다립니다.

전화발벗 자원 활동은 결식아웃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들에게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활동내용 : 이웃과의 관계가 소홀한 노인들이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매주 1회 이상 말벗 서비스를 통한 정서적 지원. 매월 1회 봉사자 정기모임을 통하여 봉사자간에 교류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짐.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결식아웃 밀반찬 조리 활동)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은 있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분이 계셨다면 이웃과 나누는 마음으로 참여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정기 봉사 안내

* **진인노인요양원 정기봉사** : 진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묘회원 정기봉사** : 묘회원 자원 활동은 농사 일 돕기와 시설 정비 활동을 주로 합니다.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지하철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한전 남부지점) 앞에서 모여 이동합니다.

대의원 총회 공지

(사)Maigo Hangirumge는 2014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지난 2월 6일(금) 정기이사회를 진행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심의된 안건(중앙모임을 비롯한 각 지부 2014년 사업 결과, 결산&2015년 사업계획안,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대의원 총회를 3월 6일(금) 2시 30분에 진행합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3일(화) 오전 10시 ~12시/세계일화실

2015년 정기 대의원총회/6일(금) 오후 2시 30분~4시/소강당

법정 스님 5주기 추모법회/16일(월) 오전 11시/설법전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22일(일) 오후 2시/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목, 금요일(5,6,19,20,26,27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김치 나눔/ 3월 ~11월 둘째 목요일(12일)/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문어도 괜찮은 옷차림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2,9,16,23,30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묘회원(차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김편백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8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전화맡벗 봉사자 정기모임/셋째 화요일(24일)/

오후 1시 30분/삿달타실
아름다운 만남/셋째 토요일(21일)/청소년과 어르신과의 첫만남(상견례)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4,11,18,25일(수)오전 10시(삼푸, 로션, 에센스, 비누)/세계일화실/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3,10,17,24,31일)/세계일화실

녹색나눔장터/3월 22일(일) 오전 10시 30분 ~ 3시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외환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 (사)Maigo Hangirumge
- 문의 : ☎02)741-4696~7



대전모임(중앙직할)

- 지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지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 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일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 조리/11시 30분-웃음치료강의/12시30분-점심 및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양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아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 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말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말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범능 스님 노래,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수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대의원 총회 공지

(사)맑고 향기롭게는 2014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중앙모임을 비롯한 각 지부 2014년 사업 결과, 결산&2015년 사업계획안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대의원 총회를 3월 6일(금) 2시 30분 길상사 소강당에서 진행합니다.

정초기도 회향

- 일시: 3월 2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춘계관음기도 입재

- 일시: 3월 6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5만원

다라니기도

- 일시: 3월 7일(토) 오후 7시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무료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3월 14일(토) 오후 8시 30분
~3월 15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무료

주말 선수련회 222기

- 일시: 3월 21일(토)~22일(일)
- 장소: 설법전
- 수련비: 5만원

주말 선수련회 223기

- 일시: 3월 28일(토)~3월 29일(일)
- 장소: 설법전
- 수련비: 5만원

불교입문 30기 개강

- 개강일: 3월 4일(수)
- 시간: 매주 수요일(12주 과정)
주간반 1시 40분/야간반 7시 30분
- 수강료: 7만원(교재비 포함)

불교대학 6기 개강

- 개강일: 3월 5일(목) 입학
- 시간: 매주 목요일(1년 2학기제)
주간반 1시 40분/야간반 7시 30분
- 지원자격: 기초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불자님
- 제출서류: 불교대학 입학원서, 사진 1매

법정스님 5주기 추모법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모두 (사)맑고 향기롭게 주어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토록 하라"시며 떠나는 마지막까지 무소유의 가르침을 새겨주는 법정스님의 5주기 추모법회가 3월 16일(음. 1월 26일)오전 11시부터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됩니다. 추모법회(다례제)는 생전 스님의 뜻을 따라 조촐하고 간소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법정스님 추모법회에 동참하시어 생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 3월 16일(월) 오전 11시
- 장소: 설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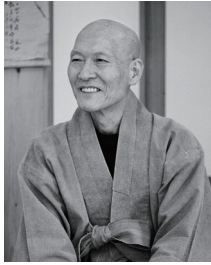
4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4월 4일	오후 7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4월 11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4월 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4월 6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4월 1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4월 19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4월 첫째주	오후 1시 30분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봄날은 갑니다. 덧없이 갑니다.
제가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돌아나는 꽃과 잎들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 法頂



법정스님 5주기 추모법회

3월 16일(음. 1월 26일) / 오전 11시

법정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3월 22일(넷째 일요일) / 오후 2시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